

가르치다 vs 가리키다

지식이나 기술을 알게 하다 · 손가락 등으로 방향이나 대상을 짚다

두 단어는 발음이 비슷해서 원어만도 표준어가 아닌 다음 형태로 섞어 쓰곤 합니다: 가르키다. 가르치다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고, 가리키다는 손가락, 바늘, 말 등으로 무언가를 짚어 보이는 것입니다.

■ 한눈에 비교

단어	핵심 의미	뉘앙스	자주 쓰는 형태
가르치다	지식이나 기술을 알게 하다	과목, 기술, 방법 등. 말할 때는 (전화번호 등을) ‘알려 주다’의 뜻으로도 씁니다.	N에게 N을/를 가르치다 한국어를 가르치다
가리키다	방향이나 대상을 짚어 보이다	손가락, 시계바늘, 화살표 등으로 가리킴; (어떤 말이) 무엇을 뜻하더라는 의미도 있습니다.	N을/를 가리키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/ 시계가 N시를 가리키다

■ 차이점

- 가르치다 = 지식을 전함.** 한국어를 가르쳐요 (한국어를 가르침). 활용형은 가르쳐요 ○ / 가르쳐요 ×.
- 가리키다 = 짚어 보임.**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(손가락으로 가리킴), 시계가 12시를 가리켜요 (시계가 12시를 가리킴). 활용형: 가리켜요.
- 가르치다는 표준어가 아닙니다.** 원어민 사이에서도 매우 흔한 혼동이지만, 글이나 TOPIK에서는 틀린 것으로 봅니다. 뜻으로 고르세요: 지식을 전함 → 가르치다, 짚어 보임 → 가리키다.
- 길을 알려 줄 때는 가리키다가 아니라 가르쳐 주다.** 길을 가르쳐 주세요 ○ / 길을 가리켜 주세요 △ (실제로 손가락으로 방향을 짚어 달라는 뜻일 때만). 일상 대화에서 정보를 알려 줄 때는 알려 주세요가 훨씬 더 자주 쓰입니다.

문장	가르치다	가리키다
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____.	◎	×
그 사람은 손가락으로 산 위의 집을 ____.	×	◎
시계 바늘이 정확히 12시를 ____ 있었어요.	×	◎
이 문제 푸는 방법 좀 ____ 주세요.	◎	×
화살표가 ____ 방향으로 가면 출구가 나와요.	×	◎

◎ 자연스러움 ○ 가능 △ 어색함 × 틀림

■ 한 걸음 더

두 동사 모두 다음 형태로 자주 씁니다: -아/어 주세요: 가르쳐 주세요 (가르쳐/알려 달라는 부탁). ‘가리키면서’라고 할 때는 -(으)면서: 가리키면서.

■ 연습 문제

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세요: 가르치다, 가리키다

- 저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____ 일을 하고 싶어요.

정답 가르치는 — 과목을 가르침 → 가르치다.

- 나침반 바늘은 항상 북쪽을 ____.

정답 가리켜요 — 바늘이 방향을 짚음 → 가리키다.

- 사람을 손가락으로 ____ 건 예의가 아니에요.

정답 가리키는 — 손가락으로 사람을 짚음 → 가리키다.

- 할머니께서 김치 담그는 법을 ____ 주셨어요.

정답 가르쳐 — 하는 방법을 알려 줌 → 가르치다.

- 이 대명사가 ____ 것이 무엇인지 쓰세요.

정답 가리키는 — 어떤 말이 무엇을 뜻함 → 가리키다.

■ 예문

- 어머니가 저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.
- 친구는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쳐요.
- 아이가 하늘을 가리키면서 “비행기다!” 하고 소리쳤어요.
- 지도에서 우리 학교가 어디인지 가리켜 보세요.
- 여기서 ‘그것’은 앞 문장의 ‘책’을 가리켜요.
- 처음 운전을 가르쳐 준 사람은 아버지였어요.

■ 자주 하는 실수

✗ 친구가 저에게 한국 노래를 가르켜 줬어요.

○ 친구가 저에게 한국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.

가리키다는 두 동사를 섞은 비표준어이며, 지식을 전하는 것은 가르치다(가르쳐)입니다.

✗ 저 사람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르쳤어요.

○ 저 사람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어요.

무언가를 짚어 보이는 것은 가리키다이고, 가르치다는 지식을 전하는 뜻으로만 씁니다.

✗ 고등학교 때 김 선생님이 저에게 수학을 가리켜 주셨어요.

○ 고등학교 때 김 선생님이 저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셨어요.

발음이 비슷해서 학습자가 가르치다 자리에 가리키다를 쓰곤 하지만,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다입니다.